

200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언어 영역 •

1	①	2	④	3	③	4	③	5	④
6	④	7	②	8	③	9	②	10	④
11	⑤	12	①	13	④	14	①	15	⑤
16	④	17	⑤	18	③	19	⑤	20	③
21	①	22	③	23	④	24	①	25	⑤
26	④	27	⑤	28	②	29	⑤	30	③
31	③	32	③	33	②	34	②	35	②
36	②	37	③	38	⑤	39	⑤	40	②
41	④	42	⑤	43	②	44	①	45	③
46	①	47	②	48	④	49	④	50	①

[듣 기]

<1번> 이제 아버지와 딸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딸: 아빠, 저 역사 드라마는 언제 봐도 재미있어요. 지난번에는 왕이 둘레에 화려한 구슬이 달린 가마를 타고 나왔는데, 오늘은 신하가 바퀴 달린 가마를 타고 있네요. 가마에도 여러 종류가 있나 봐요.

아버지: 그래, 지난번 왕이 타고 나왔던 건 '연'이라고 하고, 방금 나온 그 가마는 '초헌'이라고 하지. 초헌은 바퀴가 하나 달려 있다 보니 앉는 자리가 높아져서 관리의 위세를 나타내기에는 좋았지만 좀 위험하기도 했어. 그래서 좁은 골목길을 갈 때는 처마에 이마를 부딪치지 않게 조심해야 했지. 일반적으로 가마는 타는 사람의 신분이나 직위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었는데,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쌍가마의 경우 도성 안에서는 왕과 왕족만 탈 수 있었지.

딸: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드라마에서는 영의정이 탔던 가마에 바퀴가 없는데.....

아버지: 아, 네 명이 메고 가던 평상처럼 생긴 그 가마 말이야? 그건 '평교자'란다. 뒷개가 없어서 시원하게 다닐 수 있었지. 또한 그렇게 뒷개 없는 가마 중엔 '남여'도 있었어. '평교자'는 앉는 자리가 좀 넓었고, '남여'는 '평교자'보다 좁아서 앞뒤 두 사람이 들거나 메고 다녔지. 그런 특징 때문에 좁은 들길이나 시골길도 쉽게 다닐 수 있었어. 게다가 의자처럼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고 발 디딤판까지 있어서 편리했단다.

딸: 아하! 그렇구나. 전원생활을 노래한 고전시가를 배울 때, '남여완보하야.....'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럼 '남여'는 바로 '그것'이겠네요.

1.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설명을 듣고 '가마'의 종류와 모양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남여'는 뒷개가 없고 의자처럼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으며 발 디딤판까지 있다는 설명과 '평교자'보다 좁아서 앞뒤 두 사람이 들거나 메고 다니기 때문에 좁은 들길이나 시골길도 쉽게 다닐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지칭하는 것은 ①이다.

<2번> 이번에는 이야기 한 편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날, 나이 들고 현명한 스승이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그러고는 그 소금을 물 컵에 털어 넣게 하더니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제자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그 물을 마셨습니다. 스승은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짭니다." 제자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승은 다시 소금 한 줌을 가져오라 하더니 근처 큰 호숫가로 제자를 데리고 갔지요. 그러고는 소금을 쥔 제자의 손을 호숫물에 넣고 휘저었습니다. 잠시 뒤 스승은 호수의 물을 한 컵 떠서 제자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맛이 어떠냐?" "시원합니다." "소금 맛이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습니다. "삶의 고통은 짠 소금물과 같아. 하지만 짠 맛의 정도는 고통을 담은 그릇에 따라 달라지지. 너는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느냐."

2. [이야기가 주는 교훈 이끌어 내기]

[출제의도]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스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삶에서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고통을 수용하고 극복하는 자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④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가 가장 적절하다.

<3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대부분, 시험을 보면서 간밤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가물가물 때를 뚫으면서도 생각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때 기억한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는 현상을 망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망각 현상에 대해 예방하루는 실험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학습 직후에 망각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 30분만 지나도 40% 이상을 망각하게 되며, 1시간 후에는 55.8%, 24시간 후엔 66%, 48시간 후엔 72%나 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학습 후 한 시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틀이면 거의 대부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학습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프를 보시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그래프는 기억의 정도를 의미하는 '진보량'과 공부한 시간을 의미하는 '연습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점으로 상승하는 곡선 E가 보이죠? 이 곡선을 연습곡선이라고 하는데, 연습시간이 많을수록 기억을 안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연습곡선에서 가지 치듯 뻗은 곡선 A, B, C, D는, 연습곡선의 각 분기점에서 더 이상 연습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때 생기는 망각곡선이라고 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A와 B의 망각곡선은 급격히 하강하는 반면, C와 D는 완만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연습 시간에 따라 망각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습시간이 적어 진보량이 적은 상태에서는 망각율도 급격하지만, 충분한 연습시간을 통해 진보량이 많아지면 망각곡선도 완만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3. [자료를 바탕으로 유추 적용하기]

[출제의도] 강연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강연에서는, 학습 내용을 오래 기억하려면 연습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정기적으로 꾸준히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강연의 취지를 살린 학습 방법은 '수업 직후 바로 복습을 하고 정기적으로 다시 공부해야겠다.'라고 한 ③이 가장 적절하다. 나머지 답지들은 모두, 강연의 주요 내용인 직후 학습과 정기적 반복 학습에 대한 내용과 무관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4~5번> 이번에는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 변호사님을 모시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변호사(남): 안녕하세요.

진행자: 지난 2월, 한 지방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변호사: 예, 국민이 형사 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죄의 유무에 관한 평결을 내리거나,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절한 형량을 토의함으로써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진행자: 네,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호사: 법원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재판은 사법 전문가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으며, 주권자인 국민은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진행자: 그 말씀은 사법 측면에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지만 법률에 문외한인 일반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변호사: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법관은 법률 해석과 적용의 전문가이지 모든 사실 판단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서가 재판에 반영되어 판결이 이루어지면, 보다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배심원들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그 이유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판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변호사: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야 하고 그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충분히 반영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지닌 의의를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국민들이 사법에 대해서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다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법체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의 욕구나 요청이 표출된 것으로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사법 질서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대담에 언급된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③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절차'는 대담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대담 내용을 보면,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라고 하고 있고(①), 사법 분야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며(②),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서가 충분히 반영된 판결이 될 것(④)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비전문가의 재판 참여에 대한 우려나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문제(⑤)를 지적하고 있다.

5.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출제의도] 대담을 듣고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대담에서 진행자는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이군요.’ 등과 같이 ‘대담자의 의견을 정리’하며 이어서 청취자가 궁금하게 여길 만한 사항으로 보이는, 새로운 내용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이끌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쓰 기]

6. [그림을 보고 내용 연상하기]

[출제의도] 그림에서 연상되는 내용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그림은 ‘천 조각’들이 ‘이불’이 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됨’은 ‘작다’와 ‘크다’의 관계를 바탕으로 연상해야 하므로 ㉠ ‘유연한 태도로 친분관계를 넓히는 삶’과는 관련이 없다. 한편, ‘자투리 천’을 통해 ㉡의 ‘사소한 것’을, 버려져서 가치가 없던 천 조각을 통해서 ㉢의 ‘새로운 가치’를, ‘다양한 크기와 모양’에서 ㉣의 ‘개성’을, ‘실로 엮어’에서 ㉤의 ‘협력’을 연상할 수 있다.

7. [개요 수정하기]

[출제의도] 개요에 대한 수정 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사이버 박물관 운영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현황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밝힌 다음,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펼치며 전망을 제시하는 글의 개요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박물관을 ‘대체’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이버 박물관과 실제 박물관은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은 ‘실패’이므로 ‘현황’에 어울리고, ㉢은 문제점에 대한 단편적인 방안이므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고, ㉣은 사이버 박물관이 미술가들만의 공간은 아니므로 논지에 적절하지 않다. ㉤의 전망은 막연하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자료 활용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글의 내용을 생성해 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된 자료는 기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ㄱ에서는 기아 인구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식량생산정상회의(WFS)의 목표치와는 계속 벌어져 가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ㄴ에서는 기아의 유형들 가운데 장기적 기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이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ㄷ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식량 필수 소비량보다 더 많은 식량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ㄹ에서는 교육과 빈곤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ㄴ과 ㄷ의 자료를 활용해 식량 생산량과 필수 소비량의 균형을 맞춰 일시적 기아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끌어 낼 수는 없다(㉠).

9.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표현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새와 관련지를 것, 역설적 표현을 사용한 것,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것 등의 세 가지 조건에 맞게 표현된 것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 ‘사람들은 괴로움을 느낍니다.’에서 ‘정서’를, ‘새는 뼈가 비어 있어서’에서 ‘새’를,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에서 ‘역설’을 확인할 수 있다. ㉠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 새와 관련짓지 않았다. ㉣, ㉤ 역설적 표현이 없고 정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출제의도] 각 수준별 고쳐쓰기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 : ‘저희가’와 ‘충격이었습니다’는 문장에서의 호응관계가 어색하므로, ‘저희에게는 ~ 충격이었습니다.’라고 고쳐야 한다. ㉡ : 앞의 내용이 비유하는 내용이므로 ‘것처럼’이 적절하다. ㉢ : 맞춤법에 맞게 ‘덧있’으로 고쳐야 한다. ㉣ : 예전의 느낌이 다시 들었다는 내용으므로, ‘같은 말이나 일을 자꾸 반복됨’의 의미를 지닌 ‘되풀이되다’나 ‘다시 발생됨’의 의미를 지닌 ‘재발되다’는 적절하지 않고, ‘잊었던 감정이나 기억, 기분 따위가 다시 생각나거나 느껴지다’의 의미인 ‘되살아나다’가 적절하다. ㉤ : 선생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므로 선생님께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따라서 삭제해야 한다.

11. [활용된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활용된 어휘의 의미를 문맥을 통하여 파악하게 하는 문제이다.

[해설] 발다¹의 의미는 이 단어군의 대표적인 뜻과 함께 파생적 의미가 있고, 또한 발다², 발다³, 발다⁴와 같은 동음이의어들이 있고 그것들의 뜻이 다양하게 있다. ‘물웅덩이도 점점 발아’의 ‘발아’는 물웅덩이에 물이 말라붙는 것을 말하므로 ㉠에 해당한다. ‘애가 밟고’의 ‘밟고’는, 모내기를 하지 못해서 애가 몹시 타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므로 ㉡에 해당하며, ‘천장이 발은’의 ‘발은’은 천장의 높이가 낮다는 의미이므로 ㉢에 해당한다. 그리고 ‘술을 발을’의 ‘발을’은 술을 거를 때 쓰는 말이므로 ㉣에 해당한다.

12. [언어 자료에서 쓰임 환경 분석하기]

[출제의도] ‘-나다/-는다’가 쓰이는 환경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해설] ‘던진다, 온다, 잔다’는 ‘받침 없는 동사 어간’ 뒤에 ‘-나다’가 쓰인 경우이고, ‘몬다, 운다, 만든다’는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뒤에 ‘-나다’가 쓰인 경우이다. ‘웃으신다, 감으신다, 막으신다’는 선어말어미 ‘으시’ 뒤에 ‘-나다’가 쓰인 경우이고, ‘웃는다, 감는다, 막는다’는 받침 있는 동사의 어간 뒤에 ‘-는다’가 쓰인 경우이다. 따라서 정답은 ㉠이다.

[현 대 시]

[13~16] 출전 : (가) 운동주, 또 다른 고향
(나) 박계삼, 홍시를 보며
(다) 김수영, 하루살이

13. [시의 공통점 찾기]

[출제의도] 시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해설] 세 편의 시 모두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는 화자가 어둠 속에서 ‘풍화작용’하는 부끄러운 자아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고, (나)는 화자가 ‘뚝뚝한 체 잘도 떠드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으며, (다)는 화자가 ‘감정을 잊어버린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다(㉣).

14. [시어의 공통점 찾기]

[출제의도] 각기 다른 시의 시어들 사이의 공통된 기능을 찾는 문제이다.

[해설] ‘지조 높은 개’는 어두운 현실을 거부하는 존재로, 시적 화자에게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백골’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지향점으로 나아가도록 자극과 깨우침을 주고 있다. ‘말 못하는 식물’은 1연의 감나무, 붉은 홍시와 통하는 것으로 시적 화자가 자신과 대비하여 보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두 시어들이 지닌 공통적 기능은 ‘자기를 인식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15. [시를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출제의도] 한 편의 시를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읽어 낼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해설] ‘아, 가을!’이라는 마지막 행에는 화자의 정서가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홍시와 대비되어 성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화자의 심정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현실적 이익 추구를 벗어난 탈속의 세계와는 관련이 없다(㉤). ㉠ 자연의 섭리로 꽃이 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을 ‘아프게도’라고 표현함으로써 성장(성숙)을 위해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 선명한 색채 대비로 시각적 이미지를 뚜렷하게 부각시키며 시간의 흐름과 감이 익어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 ‘어느새’는 ‘오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므로 자연스러운 우리말 호응으로 읽으려면 ‘조금씩 변하더니 / 어느새 붉은 홍시로까지 오게 되었다’로 해야 하지만, 일부러 위 행에 붙여 써서 다음 행에 나오는 ‘붉은 홍시’의 의미에 주목하도록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 ‘하늘에 자기 모습을 열심히 비추는 것’은 감나무가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 동시에 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성실하게 사는 자세가 되는 것이다.

16. [세부적으로 시를 감상하기]

[출제의도] 시를 감상하면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감정을 잊어버린 시인’은 열정을 가지고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만 하는 시인(화자)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이 아니라 화자 자신에 대한 인식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일상에 매몰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화자가, 주변의 미미한 존재인 하루살이를 관찰하고 그에 대비하여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는 시이다(㉡). 화자에게 하루살이의 움직임은 조금씩 그 의미를 달리 해가고 있다. 처음에는 곧 죽을 조그만 벌레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미친 춤’으로 보이며 자신이 일상을 안간힘을 써서 살아가는 것 과도 비슷해 보인다. 그러다가 자신의 삶이 하루살이 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움직임이 ‘유희’, 곧 즐겁게 노는 것으로 달리 보이게 된다. 곧 죽을 하루살이지만 쉬지 않고 ‘되돌아가고 되돌아오는’ 것을 보니 ‘소리 없이’ 기고 나는 벌레임에도 자꾸 신경이 쓰이며 그 움직임이 그저 단순한 ‘되풀이[反復]’가 아니라 ‘본래 상태로 되돌림, 자꾸 고침[反覆]’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런 인식은 단순한 반복(反復)이 아닌 ‘본래 상태로의 되돌림이나 고침’과 관련 있는 삶의 변화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 상태와도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드디어는 하루살이의 움직임이 ‘눈이 부시어 어땀어땀할 정도로 찬란하거나 화려함’으로까지 인식된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하루살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연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화자 내면의 소리를 구분 짓는 줄표속 언급이 일률적으로 끝에서 두 번째 행에 배치되어 있고 각 연의 끝에 하루살이와 관련된 중요한 시어를 영탄형으로 써서 마무리하고 있다. 이런 면들이 시 전체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과 학]

[17~19] 출전 : 로버트 P. 크리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 열 가지」

17.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글에서 제시된 내용을 사실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문에서는 '캐번디시'가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캐번디시는 일단 공의 인력이 너무 약한 것을 보완했고(㉓), 여러 가지 실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실험자의 출입이 차단된 방에 실험 기구를 따로 설치했다(㉔). 이에 따라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공의 이동, 조명 문제, 측정값 확인 문제 등을 상황에 맞게 각각 효율적으로 해결했다(㉕, ㉖) 이들 중 어두운 상태에서 공의 지침을 읽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캐번디시는 방 밖에 설치된 망원경 위에 조명을 달았다(㉗).

18. [숨겨진 정보 추론하기]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통해 숨겨진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캐번디시는 원정대가 측정해 낸 값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밀도가 잘 알려진 물체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실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간단한 도구를 고안해냈다. 그런데 캐번디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의 크기를 바꾸고 실험자의 체온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외관 방에 실험 도구를 설치하였다. 이는 원정대가 수행한 측정값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외부적인 오차 요인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캐번디시가 생각했기 때문이다(㉘). 만약 캐번디시가 산의 밀도 값을 확신할 수 없어서 원정대의 실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캐번디시가 고안한 '큰 공과 작은 공 인력 실험'에서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실험 설계 이후, 오차 요인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였으므로 산의 밀도를 확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㉙).

19. [유사한 사례 찾기]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㉚ [A]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자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의 성공을 거둔 것이 후대에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알하젠이 '눈 해부도'를 그렸는데, 이를 이용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안경의 원리를 알게 되고 안경 제작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과 유사하다. ㉛에서는 연구자 자신의 의도대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 ㉜와 ㉝에서는 연구자의 실험 중에 우연히 다른 결과를 얻었다는 것, ㉞에서는 자신이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A]에서 말하는 것과 유사한 사례는 아니다.

[현대소설]

[20~23] 출전 : 현진건, '술 권하는 사회'

20. [등장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저러는 것이 참말 부자 방망이를 맨드는 것인가 보다.'라고 하며 스스로 해석하는 장면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대'나 '희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두어 달 지나'간 후에는 '아내는 따라서 근심을 하게 되었다.'에서 '근심'이나 '걱정'을, '또 몇 달이 지나'간 후에는 남편을 위로하는 장면에서 '애처로움'을, '또 한 두어 달 지나'간 후에는 '아내는 이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짜증을 내었다.'에서 '짜증스러움'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㉓이다.

21.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감상하기]

[출제의도] 작품을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감상하는 문제이다.

[해설] '아내'는 '사회'도 모를 정도이므로 '실력양성운동'의 주체라기보다는 그 대상이 될 것이다(㉑). 한편, '남편'이 조선인을 비하하고 있는 태도에서 조선인이 열등하다는 '남편'의 의식을 알 수 있으며(㉒), '남편'이 공부하고 돌아와서 '무엇을 좀 해 보겠다'고 한 점에서 '남편'이 '실력양성운동'을 펼쳤으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㉓). 또한 '남편'이 '조선놈' 때문에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자신이 좌절된 원인을 개개인의 소양이나 성격 문제, 즉 열등한 민족성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고(㉔), '남편'이 '무엇인가'를 해서 사회를 개선해 보려는 장면에서 이 '사회'가 '낙후된 식민지 현실' 속의 '사회'임을 알 수 있다(㉕).

22. [장면 간의 관계 추리하기]

[출제의도] 두 장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A]에 나타난 상황은 [B]에서 사회에 대한 좌절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B]에는 [A]의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고(㉖), 그 상황이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B]가 [A]의 행동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㉗). 두 장면 모두 좌절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거처럼 대립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거나 거처럼 극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23. [소설적 장치가 지니는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소설의 장치들이 사건 전개에서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㉘ '아내'가 '공부'를 '부자 방망이'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㉙ '남편'이 '밤새도록' 쓰고 있는 태도에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㉚ 몸이 축나고 있는 '남편'을 걱정하고 있는 '아내'의 행동이므로 적절하다. ㉛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조선 사회에서 좌절했기 때문이므로 '아내에 대한 반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㉜ '아내'가 '사회'를 '요릿집 이름'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예 술]

[24~26] 출전 : 오광수, 「한국 현대미술의 미의식」

24. [제시된 정보 이해하기]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회화적 전통이 문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정보는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㉑). 「수렵도」의 기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운동감과 유연한 리듬을 지닌 모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고(㉒, ㉓), 셋째 문단에서 동양에서 문인들의 그림을 더 높이 평가했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㉔). ㉕는 둘째 문단 '자필·묵은 문인들이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 알맞은 매체가 되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변형된 형태로 제시된 정보 파악하기]

[출제의도] 변형된 형태로 제시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둘째 문단에서 화공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전문적이고 정교한 기법이나 기교'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㉒, ㉔), 문인들이 '섬세하고 사

실적으로 그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㉕). 문인들은 '심성', '정신적 의미', '고매한 인품' 등을 그림에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㉑, ㉓).

26.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세부 정보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둘째 문단에서 모필은 문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벗'이라고 한 점과, 문인들이 시와 서예를 중시하며 모필로 대표되는 자필·묵이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자필·묵이 시와 서예의 보조 수단이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못하다(㉖). ㉗은 둘째 문단에서, ㉘, ㉙은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 술]

[27~30] 출전 : 김재수, 건축 음향 설계

27.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출제 의도] 글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은, 그리스 시대의 야외극장과 콘서트홀이라는 사례를 들어, 이 건축물의 건축 음향 설계 기술에 적용된 소리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㉚가 가장 적절하다.

28.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출제 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㉛ 품계석은 모양이나 크기 재질로 보아 소리를 집중시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㉜ '확산 반사'는 울퉁불퉁한 표면에서 다양한 각도로 반사되므로 소리의 확산 효과가 크다. 인정전의 울퉁불퉁한 돌바닥은 이러한 확산 반사의 효과가 있다. ㉝ '돌로 된 계단'은 그리스 야외극장의 경사진 돌계단과 같은 역할을 한다. ㉞ 옆 담(회랑)은 마당의 소리를 안으로 다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㉟ 끝이 들어올려진 처마도 아래에서 말하는 소리를 마당 쪽으로 반사시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플러터 에코'는 평행의 공간에서 반복된 울림을 말하므로 처마에서는 플러터 에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9. [내용 추리하기]

[출제 의도] 제시된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해설] ㉑ '잔향은 반사음에 의해 생긴 현상으로 풍부한 울림을 주므로 음악 연주 시는 긴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㉒ 잔향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치란 흡음재 사용이며 이는 반사음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킨다. ㉓ 반사에 의한 소리의 울림이 많으면 소리가 불분명하게 들린다. 특히 강의실은 그러한 울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 흡음재를 사용한다고 볼 때, 소리가 또렷이 들린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㉔ 저주파수는 잔향 시간이 길고 전달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먼 곳에서는 '저주파인 북소리'가 '고주파인 팽파리소리'보다 더 멀리 간다. ㉕ 흡음재는 소리를 반사시키지 않고 흡수해야 하므로 재질이 단단해서는 안 되고 성기고 부드러워야 한다.

30. [유의어 찾기]

[출제 의도] 제시된 어휘가 쓰인 다양한 문장을 통해 바

꾸어 쓸 수 있는 유의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③ ‘물건을 고르게 배치하다’에서 ‘고르게’는 ‘여럿이 다 양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의 뜻이므로 ‘평등’이 아니라 ‘균일’이 적합하다. 균등(均等) :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 동등(同等) : 등급이나 정도가 같음, 균일(均一) : 한결같이 고름, 평등(平等) :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평평(平平) : 바닥이 고르고 판판하다.

[고전 소설]

[31~34] 출전 : 작자미상, 「배비장전」

31.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고전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③ 판소리계 소설의 주요한 특징인 풍자와 해학이 두드러지는 이 작품에서 작가는 배비장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고, 배비장과 방자와의 대화를 통해 방자에게 희롱당하는 배비장을 희화화하여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시키고 있다.

32. [인물의 특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인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③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고 있다’는 근거를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① 방자의 희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하다. ② 여자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하다. ④ ‘방자 입시(入侍) 보내고 빈 방 안에 문을 닫고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배비장이 여자를 만난다는 일념으로 방자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대화의 구조와 의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대화 구조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② ‘배비장의 주저’는 방자의 제안의 속뜻을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만나고 싶으나 웃을 벗으라는 제안에 대해 잠시 멈칫거린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을 굶려주려는 방자의 의도를 알아차린 것은 아니다. ① 이 소설은 작가(서술자)가 양반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방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므로, ‘방자의 제안’에서는 배비장을 조롱하기 위한 작가(서술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③, ④ ‘배비장의 주저’에 방자는 배비장이 자신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배비장에게 제안한 ‘웃 벗음 강요’를 철회하는데, 이는 배비장의 행동을 자극하고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⑤ 배비장이 방자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인 여자를 만나고 싶은 욕망 때문이므로 수용 이유를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기 위함’은 적절하다.

34. [작중 상황을 한자성어로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중 상황을 파악해 한자성어로 나타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C]는, 배비장이 여자를 만나러 개구멍으로 들어가다가 그 구멍에 배가 걸리자 안에서 방자가 다리를 잡아당겨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다. 이 상황에서는 그냥 ‘구멍이 작아 들어갈 수 없으니 다리를 잡아당기지 마라’라고 하면 될 터인데, 배비장이 유식한 한문 두 표현을 한 것은 그가 허세를

부리고 있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어울리는 말은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을 뜻하는 허장성세(虛張聲勢)이다. ① 조삼모사 :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③ 방약무인 :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 ④ 호가호위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⑤ 아전인수 : 자기 눈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사 회]

[35~37] 출전 : 조현재 외, 「CO₂ 전쟁」

35. [사실적인 정보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② 교토의정서의 주된 목적은 ‘국가 간 경제 교류 확대’가 아니라 온실 가스 감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글의 전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의 ‘온실 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세 가지 체제를 도입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의 ‘온실 가스 감축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ㄱ 마지막 문단의 ‘일부 국가는 교토메커니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바탕으로 두고 참여 유도 방안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은 적절한 비판적 반응이다. ㄴ 교토의정서는 환경 보호 차원의 온실 가스 감축이 주목적인데, 제시문은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비판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다. ㄷ 마지막 문단에서 경제적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 아니다. ㄹ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바로 교토메커니즘이므로 적절한 반응이 아니다.

37. [주어진 정보에 따라 사례 이해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에 따라 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 ②, ③ [A]의 ‘의무 감축국인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 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과 ㉠의 ‘네덜란드가 브라질에서 ~ 청정 개발 사업’의 내용을 종합하면, 네덜란드가 의무 감축국인 선진국이고 브라질이 개발도상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에서 ‘개발도상국이 기술과 재정 지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브라질은 네덜란드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고 재정 지원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도 알 수 있다. ④ [A]에서 ‘효율적으로 온실 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정 개발 사업은 온실 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⑤ [A]에서 ‘의무 감축국은 온실 가스 감축량을 얻’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는 온실 가스 감축량을 얻기 위해 사업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전시가 복합]

[38~42] 출전 : (가) 안민영, 「매화사」
(나) 정약용, 「보리타작」
(다) 김훈, 「자전거 여행」

38.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출제의도] 세 작품에 나타나 있는 화자의 공통된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⑤ (가)에서 단아하고 아름답고 굳센 매화를 통해, (나)에서는 농부의 건강한 노동을 통해, (다)에서는 대나무의 다양한 속성을 통해 그것의 긍정적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다. 즉 모두 중심 소재에서 긍정적 가치를 이끌어내고 있다.

39.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

[출제의도] 연시조와 수필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표현 방식과 그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⑤ 상상의 이미지는 (가)와 (다)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는 ‘너를 믿지 아녜더니’, ‘눈 속에 네로구나’ ‘너뿐인가 하노라’ 등에서 화자가 대상(매화)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이 드러나 있다. ② ‘눈-매화’의 대비를 통해 고난에 굴하지 않는 매화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러한 매화의 모습은 이 작품의 주제와 직결된다. ③ 감각적 표현은 둘째 문단 ‘봄의 대숲은 ~ 내뿜지 않는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결한 문체는 작품 전반에 나타나 있으나 특히 2문단과 4문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④ (가)에서는 눈 속에 꽃을 피우는 매화의 생태적 특성을, (다)에서는 ‘여름의 대숲은 ~ 내뿜지 않는다.’, ‘왕대는 80년에 ~ 모조리 죽는다.’ 등에서 대나무의 생태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인간의 삶과 관련짓고 있다.

40.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기초가 되는 시어의 의미 및 그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② (나)와 (다)의 ‘낙원’은, 모두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이다. (나)에서의 ‘낙원’은 농부들이 건강한 노동의 현장이자,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화자가 쫓아다니던 벼슬길과 대조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는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에서의 ‘낙원’은 현실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공간이므로 역시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신념을 다지는 공간, ③ 삶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공간, ④ 현실을 초월 공간, ⑤ 수양의 공간은 모두 ‘낙원’의 문맥적 의미와 거리가 멀다.

41.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하기]

[출제의도] 두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④ (나)와 <보기>의 ‘벼슬길’과 ‘너나쁜 일’은 모두 세속적인 관심사를 뜻하는 것으로 화자가 지양하는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보기 어렵다. ① (나)의 ‘보리밥’은 예서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농사일에 몰두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어이고, <보기>의 ‘보리밥’은 소박한 삶과, 어떤 것에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소재이다. ② (나)의 ‘마당’은 삶의 터전으로 제시된 노동의 공간이며, <보기>의 ‘물가’는 유유자적하며 여유 있게 즐기는 풍류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노랫가락’에서는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흥겨움을 느낄 수 있다. <보기>의 ‘노니노라’에서는 한가롭고 여유 있게 자연을 즐기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혜매고 있으리오’와 <보기>의 ‘부러워 할 줄이 이시랴’에서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생각을 설의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의 주제 파악을 돕는 시어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⑤ ‘눈’은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시어이며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눈’은 매화에게는 부정적 대상이므로 시련 속에서도 깨끗한 매화의 이미지를 강조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① ‘어리고 성긴 가지’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의 매화를 뜻한다. ② ‘암향조차 부동터라’는 매화의 그윽한 향기가 마치 눈앞에 떠다니는 듯하다는 뜻이므로 후각적 심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빙자옥질’은 얼음처럼 차갑지만 옥을 깎아 놓은 듯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뜻한다. ④ ‘봄뜻’은 함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화자가 소망하는 가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언 어]

[43~46] 출전 : 허용, 「말소리의 특징과 우리말 발음」

43. [글의 전개상 특징과 핵심 화제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화제가 무엇이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② 이 글은 특정 음운인 ㅂ(b)과 ㅌ(w)의 영향 관계와, 자음과 모음이 서로 영향 관계에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44. [세부 정보의 파악과 미루어 알기]

[출제의도] <보기>의 사례 자료들이, 자음과 모음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이 글의 논지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하는 문항이다.

[해설] 이 글의 3, 4문단에서 모음으로 인해 자음이 변하는 경우인 구개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은 우리말의 구개음화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음과 모음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 글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2문단에서는 우리말과 영어에서 ㅂ(b)이 ㅌ(w)로 바뀌거나 넘나드는 언어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의 사례이다. ㉢, ㉣는 자음 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논지와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45. [세부 내용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③ 이 글은 음절의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 아니므로, ‘자음이 없이 모음 하나로도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가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①과 ②는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는 1문단에서, ⑤는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46.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맥락을 통해 특정 어휘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의 ‘일어나다’는 ‘어떤 일이 생기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것은 ①의 경우이다. ②는 ‘잠에서 깨어나다’의 뜻으로, ③은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의 뜻으로, ④는 ‘병을 앓다가 낫다’의 뜻으로, ⑤는 ‘몸과 마음을 모아 나서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인 문]

[47~50] 출전 : 발리스 듀스, 「그림으로 이해하는 현대 사상」

47.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② 둘째 문단의 ‘후설은 세계의 의미는 ~ 주관의 의식을 넘어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다’를 통해 틀린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① 첫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둘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셋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넷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48. [세부 내용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주된 논지를 이루는 핵심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피투성’과 ‘기투’는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는 하이데거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중심이 된다. ‘숙명적’은 자신의 선택으로 바꿀 수 없는 피투성의 성격에 부합하는 말이며, ‘선택적’은 기투의 성격으로서 모든 인간이 존재와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다(④). 능동적과 소극적은 주체의 대응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투성과는 거리가 멀고 기투에만 해당한다(①). ‘필연적’은 기투가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고(②), ‘개별적’은 피투성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③). 그리고 ‘이기적’과 ‘희생적’은 피투성과 기투에 대한 본문의 설명과 무관한 속성이다(⑤).

49. [구체적 사례 찾기]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의 구체적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해설] 진리에 대한 질문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문에서는 불안을 내포한 물음, 즉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에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나는 여기서 존재하는가?’ 등으로 예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소크라테스의 질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진리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것일까?’와 함께 추리해 보면,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질문’이란 세계와 인간의 본질적 의미를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④는 구체적인 관찰과 측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즉 사실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므로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질문의 성격과 다르다.

50.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문맥에서 사용된 어휘의 뜻에 가장 가까운 어휘를 찾는 문제이다.

[해설] ‘이름 붙이다’는 아직 확정적으로 명칭이 부여되지 않은 대상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어휘는 ‘명명(命名)하다’로 볼 수 있다. ‘직면(直面)하다’는 글자의 뜻대로는 ‘직접 또는 바로 얼굴을 대하다’인데 이 글의 문맥에서 쓰인 의미에 가장 가까운 말은 ‘맞닥뜨리다’이다(①). 서명하다 : 자기의 이름을 써넣음, 지명하다 :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킴, 표명하다 :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냄, 호명하다 : 이름을 부름, 맞물리다 : 마주 물리다, 맞대다 : 서로 가깝게 마주 대하다, 맞닿다 : 마주 닿다, 맞붙다 : 서로 마주 닿다.